

때를 알아 보고자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의 HbA_{1c}를 colum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만성신부전 환자 34명의 HbA_{1c}치는 평균 10.52±1.01g%로써 정상대조군 47명의 8.81±1.04g%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1).

2)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혈액부석군과 비부석군과의 HbA_{1c}치에 유의한 차는 볼 수 없었다.

3) 만성신부전 환자중 혈액부석 미시행군에서도 HbA_{1c}치와 BUN 및 creatinine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0.68, p<0.05, r=0.75, p<0.05).

4)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HbA_{1c}은 혈액 pH 및 혈장 HCO₃⁻치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24 -

말기신부전환자와 신중후군환자에서 혈청 및 뇨중 Zinc와 Copper에 관한 연구

경희대의 내과

권오선 · 장영운 · 임천규 · 김명재

Zinc와 Copper는 생체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수신통의 요소의 구성성분이나 조효소로 작용하여 신체의 성장 발육 및 정상기능을 유지하게한다. Zinc의 결핍때 나타나는 남성성기능부전, 미각 및 후각장애, 골대사이상, 피부병변 및 상처회복장애등이 말기신부전환자의 임상상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말기신부전환자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저말기신부전환자의 혈청 및 뇨에서 Zinc(Zn)와 Copper(Cu)를 측정하고 아울러 신중후군환자에서도 같은 검사를 시행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은 1982년 11월부터 1983년 8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던 말기신부전환자 24명과 신중후군환자 11명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건강한 성인 19명으로 하였다.

1) 말기신부전환자에서 혈청 아연(Zinc)은 99.1±38.4 µg/dl로 대조군에서의 149.1±33.2 µg/dl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혈청 동(Copper)은 119.5±52.6 µg/dl로 대조군에서의 110.1±44 µg/dl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p<0.05, p>0.1).

2) 신중후군환자에서 혈청 아연은 92.9±51 µg/dl로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혈

청 동도 83.5±42.9 µg/dl로 의미있는 감소가 있었다(p<0.1).

3) 24시간 뇨중 아연과 동의 배설은 신중후군환자에서 아연의 배설에만 대조군에 비해(682.4±90.2 µg)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증가가 있었다(2,713.7±579.1 µg, p<0.025). 혈청과 뇨중에서 아연과 동농도뿐 아니라 각 조직에서의 농도 및 관련효소의 측정은 말기신부전환자의 대사이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목적으로 아연제제투여를 통한 말기신부전환자의 임상상교정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25 -

말기신장질환에서 혈액부석이 좌심실 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의 내과

오정균 · 김한수 · 이태원 · 김권삼

임천규 · 김명식 · 송정상 · 김명재

말기신장질환에서 심부전은 흔한 합병증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말기신장질환 환자에서 혈액부석이 체액 과부하를 경감시키지만 좌심실기능을 호전시키지는 확실치 않다. 연구들은 1979년 2월부터 1983년 8월까지 희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에서 3주~4년 6개월간(주당 8~12시간) 정기적인 혈액부석을 받고 있는 사람 14명을 대상으로 초진시와 비교적 장기간의 혈액부석후에 심장 초음파도를 시행하고 구혈율(Ejection Fraction) 및 %FD, Vcf을 구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1) 초진시 구혈율은 9명에서 0.71±0.06으로 정상범위였고(B군), 5명에서는 0.53±0.03으로 감소되어 있었다(A군).

2) 3주~4년 6개월간(주당 8~12시간) 혈액부석을 받은 후 A군의 다음 혈액부석 직전의 구혈율은 0.67±0.06, Vcf 1.03±0.15, %FD 31.04±4.16으로 초진시에 비하여 상승하였으나 B군은 구혈율 0.73±0.07, Vcf 1.63±0.44, %FD 36.73±6.68로 통계적인 유의한 상승은 없었다.

3) A군환자 5명중 2명이 소량의 심낭 삼출액저류를 갖고 있었고, 4명에서 울혈성 심부전 소견을 보였고, B군환자 9명중 5명에서 심낭 삼출액 저류를 보였고 5명에서 울혈성 심부전 소견 및 증세를 보였다.